AI로 해석하는 불교의 지혜

日, 고야산 1200년 된 소장문헌 전산화 나서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성지인 고야산(高野山). 1200년 전 코보대사(弘法大師)가 개산해 일본 진언종의 총본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고야산에 소장된 방대한 양의 불교 문헌들이 AI를 통한 해석과 전산화에 들어갔다. 이 중요한 소식을 8월 27일 일본 'AI신문' '뉴스픽' 등의 매체가 보도했다.

8월 23일 고야산 대학에서는 'AI가 개척하는 고야산의 지식의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고야산 측은 "고야산 내에서 AI와 같은 현대과학 심포지엄이 열린 것은 사상 최초"라고 전했다.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은 히다카 젠포 스님은 "고야산에 전해지는 방대한 문헌들은 역사의 보고다. 인력으로만은 그 전모를 밝히는데 상대한 시간이 소모된다. AI를 활용함으로써 해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단축된다"면서 고야산에 남은 불교의 지혜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젠포 스님은 "진언종의 승려로서 종조인 코보대사의 가르침을 익히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중의 업무에 쫓겨 공부할 시간이 항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옛 스승들의 가르침이 담긴 문헌들이 해석되고, 검색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가 된다면 출가자들은 물론, 재가자들도 코보대사와 진언종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패널로 나선 AI연구자 이시야마 코우 씨는 "단순히 AI가 고야산의 지혜를 다시금 빛나게 할 뿐 아니라, 반대로

코보대사 · 진언종 가르침
더 많은 대중에 전하고자
AI 활용… 140년분 해석
"AI 연구에도 긍정적 효과"

AI연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AI 모델링 가운데 차기 도전과제로 불리는 인간특유의 고차적인 생각에 대한 모델링과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 가운데 코보대사가 설명하는 밀교적 세계관과 합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보대사가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의 마음을 열 단계로 분류, 저층계에서 고층계로 발전해나가는 구조가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야산에 소장된 문헌에 대해 소개한 코가사하라 하사히토 고야산 문서편집위원은 "고야산 문헌은 단순히 불교문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 진언종 사찰들로부터 보고 받은 시대와 지역의 다양한 정보가 결집된 자료군"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기근과 같은 천재지변의 기록이나 당시 지역의 풍습을 보고한 내용도 많아 "1200년간의 시간이 담긴,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료"라고 전했다.


고야산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발언하는 패널들. 사진출처=AI뉴스

문헌해독을 담당하고 있는 고야산 문서편집위원회는 가장 첫 작업으로 에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140년분의 기록을 AI를 이용해 해독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문헌은 〈히나미키(日並記)〉라는 문서로 고야산 진언종의 총본산인 콘고부지(金剛峰寺)의 업무 일지다. 약 10인의 전문연구자들이 지난 2년간 총 240권 중 80권을 완료됐다. AI는 이 작업에서 글자가 지워지거나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복원하거나, 이미지화된 문헌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젠포 스님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AI와 불교 간의 접점에 대한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님은 "고야산은 중세 일본 학문과 지식을 발산하는 거점이었다. 그렇기에 현대 최첨단 기술인 AI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전문기술기업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였다. 물질의 시대에서 마음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말이 되는 현대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지 향후 고야산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점차 격 높아지는 반려동물 장례

반려동물 함께하는 묘지 늘어… 천도재도 확대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사후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8월 30일, 일본의 '츄니치 신문' '도쿄신문' 등은 반려동물에 대한 천도재나 장례법회가 최근 사람에 준하게 진행되고 있어 화제라고 보도했다.

도쿄 교외의 하치오지 기념공원. 반려동물과 그 반려인이 함께 잠들 수 있는 잔디묘지 구역에 반려동물의 모습을 새긴 묘비가 서있다. 2년 전 죽은 반려견의 무덤을 성묘차 왔다는 한 여성은 "친자식처럼 애정을 쏟아왔고, 가족과 다름없는 아이들을 단순히 반려동물 묘지에 매장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은 "내가 죽은 후에는 이 아이들과 함께 여기 잠들 것"이라며 반려견의 묘에 향과 초를 켜고, 꽃을 꽂는 등 일반적인 성묘와 동일하게 무덤을 돌봤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천도재나 장례법회, 묘지가 활성화됐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을 사람과 동등하게 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도쿄도내에 반려동물 천도재를 지내는 모 사찰의 주지스님은 "천도재의 발원문을 읽는데 반려동물을 대해 축생도(畜生道)라는 말이 들어갔다며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려동물 묘지 전문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묘지가 시작, 당시 1개소로 민간 묘지만 있었던 것이 올해 8월 11개소로 증가, 심지어 도쿄도내의 사찰이 관리하는 묘지도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후문제제와 관련된 사찰과 전문업자들이 모인 '일본동물영원연합'의 이사장 쿠키 세이가이 스님은 "최근 들어 반려동물과 함께 묻히고 싶다, 반려인의 사후에도 반려동물의 기제사를 지내주길 바란다는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이가이 스님은 자신의 사찰에서도 7년 전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묘지와 장례법회, 천도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가이 스님은 "동물도 인간도 모두 동일한 생명을 가진 생물, 동등하게 죽음을 위로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먼저 떠난 반려견의 묘에 손을 모으는 여성. 사진출처=츄니치신문

미얀마 스님 '극우불교'에 쓴 소리

소수민족 탄압 중재 나선
먀와디 사원 비운사 스님

미얀마가 종교 갈등으로 인한 증오범죄와 폭력 사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한 스님이 불교 · 기독교 · 힌두교 · 이슬람교 종교 지도자들과 소수 종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의 9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만달레이에 위치한 먀와디 밍기(Myawaddy Mingyi) 사원의 사야도우 아신 아리야 원 타 비운사(Sayadaw Ashin Ariya Wun Tha Bhiwun Sa · 사진) 스님은 최근 민족주의 · 극단주의에 봉착한 미얀마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


사진출처=ucanews.com

이 스님은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종교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우리는 소수 민족에 대한 증오심을 심기보단, 다양한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을 위해 싸우고, 극우 불교도들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대다수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불교 승려로서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침묵은 극우 불교도들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 (극우) 승려들에 대한 비판은 공동체의 분열이 아니라, 소승불교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스님은 극우불교 단체 '마 바 타(Ma Ba Tha)'의 소수 무슬림족에 대한 탄압으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 바 타'는 소수 무슬림 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와 탄압을 조장해 2017년 강제 해산됐다. 하지만 이후 '붓다 담마 필란트로피 재단(Buddha Dhamma Philanthropy Foundation)'이란 이름으로 재설립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평소에도 '마 바 타'에 대한 공개 비판을 서슴지 않던 비운사 스님은 "극우 불교 단체 소속 스님이 미얀마 전체 불교 인구 89%를 대표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침묵하는 스님들보다 그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적 민족주의자"라고 혹평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석가모니 부처님 '치아' 대중 전시

캘리포니아의 한 사찰, 1만여 불교 유물 공개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아 등 희귀한 불교 유물 다량이 대중에 공개됐다.

CBS로스앤젤레스는 8월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로즈미드에 위치한 웨이 마운틴(Wei Mountain) 사원에 있는 부처님 치아는 그곳에서 전시 중인 수천 점의 유물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 같은 전시 소식을 보도했다.

전시 유물 중 상당수는 불자들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해당 사원에서 소장한다. 해당 사원 스님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불교 신앙에서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유물들의 일부를 선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시되는 유물은 1만개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며 "대부분의 유물은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건너와 사찰에 기증됐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유물 중 단연 주목받는 것은 부처님의 '눈'이다. 고고학적,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사찰의 스님들은 해당 유물이 부처님의 실제 눈이며, 보존처리됐다고 주장한다.

사원의 한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 눈 유물이 미얀마 정글에서 미얀마 스님에 의해 발견됐다고 들었다"며 "이 유물 역시 우리가 기증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GmSoft GM since 2015 SOFT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천비록 天秘錄

천지인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땅, 사람의 비밀 天秘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도서 가격 15,000원 | 도서출판 대도대한 063)643-7285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교보문고 각 지점 | 영풍문고 각 지점 | 반디앤루니스 각 지점 | 리브로 각 지점

구리 동원서적 | 대전 보문불교 | 대전 계룡문고 | 대전 중앙출판 | 대구 세원출판
대구 에스디커뮤니 | 울산 처용서림 | 부산 영광도서 | 구미 춘양당 | 창원 창원서적
마산 대신서점 | 전주 홍지서림 | 순천 중앙서점 | 목포 국제서림 | 제주 탐라도서
등 전국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